



---

문서번호 : 17-6-통일위-01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제 목 : [민변][통일위][성명]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남북 화해와 평화, 교류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자.  
전송일자 : 2017. 6. 14. (수)  
전송매수 : 총 2 매

---

## **[성명]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남북 화해와 평화, 교류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자.**

한반도의 허리가 두 동강 나며 갈등과 긴장을 지속하던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뒤 올해로 17주년을 맞았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 상호간의 체제를 존중하고 오롯이 우리 민족의 의지로 통일을 달성하고자 화해와 협력 정책을 제도화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한 우리 민족의 다짐이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내고 이를 계승하면서, 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바람을 엄혹한 한반도의 현실 안에서 조금씩 풀어내는 결실을 이뤄냈다.

그렇지만 도도하게 흐르던 평화와 통일의 물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반민족적 행태로 오랫동안 가로막혀 그 힘을 잃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외면하고 북에 대하여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였으며, 그 결과 가까스로 쌓아올린 남과 북의 신뢰는 참담하게 무너졌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는 가로막혔다.

북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는 상호존중과 화해를 기반으로 하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이미 뜨겁게 타올랐던 우리 민족의 열망과도 동떨어진 작태였다.

지난 9년 동안 비극적인 역사의 퇴행을 목도했던 우리에게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전면적으로 가로막혀 있던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끝없는 평행선만을 달리던 남과 북의 간극을 좁히고 갈등을 봉합하여, 우리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17주년을 맞은 지금 이 순간은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 우리 민족의 의지와 열망을 모아 강한 결기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시대적 사명으로 삼아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영원히 끊고 평화와 통일을 향한 담대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2017년 6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직인생략)